

〈소 개〉

일제시대(日帝時代)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편찬 이과교과서(理科教科書)¹⁾

永田英治 · 송 민 영
(일본 宮城教育大學)(경기도 광문국민학교)

1. 서 론

조선총독부편찬 '초등이과서'(1931~)가 혁신적인 편집 방침으로 편찬되었다 라는것은, 그것이 출판된 당초부터 일본의 이과교육 연구자들에게 주목되어져 왔던것이다.

1920년경부터 제2차세계대전즈음까지, '신학습과정(新學習過程)'을 제안하고 그것에 근거한 교재의 개발·교육의 실천을 제안하여 온 칸베이사부로(神戸伊三郎, 1884-1963)는, 1934년 '대만·조선의 이과서를 통하여 이과교육의 동향을 봄'(神戸伊三郎, 1934) 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대만·조선의 이과서에서 생물교재의 기사(記事)가 생태위주로 되어온 것은 일대진보이다."라고 말하고, "형태와 생태의 연결에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내용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나 종합적인 취급등에 제일 주의를기울인 이과서는 조선총독부편찬 '초등이과서'이다."라고 격찬하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이것은, 1941년 '국민학교령'하의 일본 문부성편찬 '초등과이과(初等科理科)'의 편집형식이나 교재의 선택·배열방침에 직접 이어지고있다(長谷川純三, 1967;

板倉聖宣·永田英治, 1986)²⁾. 그러므로, 일제하 조선총독부 편찬 이과교과서의 교재구성, 수업중 사용되어지는 기능과 편집형식의 변천을 조사해 보는것은, 우리나라의 자연과 교재 구성의 추이를 파악해 보는것이 되며, 일본 문부성의 이과교과서편찬에 일대 변환을 가져다준 하나의 실험적인 사례를 명확히 하는것이 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일제하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이과교과서의 전체상을 명확히 하여 두고자 한다.

2. 조선총독부하 초등교육의 시대구분과 이과교과서

먼저, 조선총독부하 이과에 관한 교육과정을 정리하여, 동 총독부편찬 이과교과서가 그 교육제도·과정중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명확히 하여두기로 한다.

<도표1>은 왼쪽난에 이과에 관한 교육제도·과정을 써 넣고, 오른쪽난에는 필자들이 조사한 이과교과서에 대하여 기입해 놓은것이다. 교육사편찬회(1939)에서는, 1922년의 '조선교육령' 개정이후를 '총독부하의 교육이 정착한시기

1) 본 원고는, 永田英治·송민영에 의한 학회에서 발표<조선총독부 하의 이과교과서>(1992. 11. 8 일본이과교육학회 제 32회 동북지구대회, 弘前대학)와 <조선총독부 편찬 '초등이과서'와 문부성편찬 '초등과이과'>(1993. 8. 4 일본 이과교육학회 제43회 전국대회, 福岡교육대학)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며, 공동동명으로 일본이과교육학회지 '이과교육'에 투고, 게재확정된 내용임.

2) 永田英治·송민영에 의한 <조선총독부편찬 '초등이과서'(1931~)와 문부성편찬 '초등과이과'(1941~)>를 '일본이과교육학회 연구기요'와 '초등과학교육'에 투고 중.

<도표 1> 조선총독부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이과 교과서

기	년	초등학교의 제도와 교육과정	초등학교의 이과 교과서	기
①	1911	8.24「조선교육령」--보통학교 4년제(3년제도 가능). 10.20「조선교육령」에 기초하여 「보통학교규칙」제정--이과는 3,4학년연에 주당2 시간(지역사정에 따라 빼도 됨) 「생활에 실제로 응용/실업에의 공헌」을 강조. 일본인만 다니는 소학교는 따로 둠(1922년 조선교육령하에 놓여져,1938년 보통학교와 통일).	3.15조선총독부편 「보통학교학도용 이과서전2권 -- 구학부편찬 교과서를 개정한것. (1912.3.15 제3판 발행 -- 초판미전).	0
	1913	최초의 독자편찬 이과교과서→	2.15.6.15조선총독부편 「보통학교이과서」전2권--새롭게 편찬된 것으로 실험관찰 결과물 전제로한 '연습문제'부가, 초판미전.	1
	1916		3.25조선총독부편 「보통학교이과서,교사용 권1(권2교사용은 미전)	
	1918	2.21 「서당규칙」제정--보통학교의 보급을 위해 서당을 규제		
	1919	3.1 독립운동		
기	1920	11.10「조선교육령」개정 -- 4년제「보통학교」를 6년제로 바꿈(45년제의 학교도 가능),2년제의 「보습과」도 둠. 11.12「보통학교규칙」 개정. 수의과목이었던 「이과」를 필수로 함 -- 3-6학년 주당(2)시간. 12.23「조선총독부 임시 교육조사위원회 규정」을 정함.	11.9「조선총독부 교과서조사위원회 규정」을 정함.	기
	1921		2.18.3.15조선총독부편 「보통학교이과서」전2권 정정재판발행 -- 농업교과를 줄이고 식물학교과·물리교과를 증가시킴(정정재판의 권2 교사용서는 1922.1.28간행, 同권1은 미전)	2
②	1922	2.6「조선교육령」개정, 초등학교를,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가 다니는 심상소학교(6년제)·고등소학교(2 또는 3년)와 일본어를 상용하지않는 자가 다니는 보통학교(6년제, 45년제도 가능)로 하고, 소학교가 조선교육령하에 놓여짐(5년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에 상용). 2.10「소학교규정」, 同2.15「보통학교규정」 -- 이과의 정도는 소·보통학교 모두 일본의 법령과 같음. 4-6학년 주당 각(2)시간.		기
	1923	문부성「심상소학교이과서」와 거 의 같음→	2.25 조선총독부편 「보통학교이과서」, 교사용 권1 번각발행(권2는 '24.4.20, 권3은 '25.4.15). 10. 8 조선총독부편 「보통학교이과서, 아동용 권1 번각발행(권2는 '24.2.15, 권3은 '25.2.20).	3
	1926	6.26「보통학교규정」개정 -- 6년제에만 부가되었던 과목인 「농업·상업」을 4년제의 단속코스에도 부가과목으로 가함 -- 실업교육의 중시.		
	1927	3.31 「소학교규정」중 개정 -- 고등소학교의 교과에 「실업」, (2년제 각학년 주(3)시간, 3년제에 주(5)(5)(6)시간)을 정과에 넣음.		
	1928		6. 임시 교과서조사위원회 답신 -- 「근로예호,흥업치산」, 「조선의 미풍양속」을 중시 하는 교재를 늘리는 것이 강조됨.	기
③	1929	6.20 「소학교규정/보통학교규정」중 개정 -- 가설과목의 「실업」을 정규의 교과 「직업」으로 함. (이과의 시간수는 변함이 없지만, 이과중에서도 「직업지도」를 강조.		4
	1931	학습과제중심의 교과서 →	3.31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서」, 아동용 권1 번각발행(권2는 '32.4.15, 권3은 '33.4.15). 12.25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서」, 교사용 권1 번각발행(권2는 '33.3.25, 권3은 '34.7.5).	
	1934		3.15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서 (4년제)」, 아동용 전1책 번각발행.	
	1935		1.28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서(4년제)」, 교사용 전1책 번각발행.	
	1937		3.31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 아동용 권1,2 번각발행 (권3은 '38.2.28).--'31년의 개정판.	
	1938	3.3 「조선교육령」 개정 -- 2종의 학교가 소학교로 통일됨. 3.15「소학교규정」개정--소학교·보통학교를 심상·고등소학교(6년제2 또는 3년제)로 통일.이과의 정도에「이용후생」을 부가함(시간수등은 변함없음).	2.20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교 사용 권1 번각발행 (권2는 4.25, 권 3은9.20) --'31년의 개정판.	
1939		10.15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4년제)」, 아동용 전1책 번각발행(교사용서 未見).		
⑤	1941	3.31 「소학교규정」을 폐하고 「국민학교규정」을 설치,「理數科理科」를 둠. 1-3학년은 자연의관찰 주(2)(2)(1)시간, 일반이과는 주(2)(2)(2)시간으로 일본내지와 시간배당이 같음.	9.10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 아동 용 제5판 번각발행(권3은 '43.1.25) -- * 표음식기나를 사용하고, 장소 가 특정화 되어있는 것을 수정.	기
	1942	문부성편「자연의 관찰」과 같은 편성 형식 →	3.31 조선총독부편 「자연의관찰」, 교사용만 1,2학년용상 번각발행 (1,2학년용하는 9.25, 3학년용은 '43.3.31). 3.31 조선총독부편 「환경의관찰(4년)」, 교사용만 번각발행 -- 문부성편 「향토의관찰」에 대응.	5
	1943	3.25「조선교육령」개정문부성편 「초등과 이과」와 같은 편성 형 식→	3.31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가로쓰기]아동용 제4학년용 번각발행 (5학년용은 '44. 1. 25, 6학년용은 '44.3.15 번각발행). 3.31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가로쓰기] 교사용 제4학년용 번각발행 (5학년용은 '44. 3. 3 번각발행, 6학년용은 미전).	기

* 문장의 표현방법을 표음식기나사용법과 역사적기나사용법으로 나누고 있음.

’로 구분하고, 그 이전을 ‘초창기(草創期)’라 하고있다. 또, 이시가와켄(石川謙, 1964)은, 1922년 이후를 다시 1938년의 ‘조선교육령’ 개정에서 구분하여, 조선총독부하의 교육을 3기로 나누고있다(왼쪽에 굵은횡실선으로 표시). 그위에, 아베히로시(阿部洋, 1990)에 의하면, ‘근대일본교육제도사료’의 시대구분을 이어받아 교과서편찬과 관련하여 1928년의 ‘임시 교과서조사위원회 답신’과, 국민학교를 설치한 1941년의 ‘조선교육령’ 개정에서 다시 구분하면 “편리하다”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과의 교육과정과, 그에따라 사용되었던 교과서를 보면, 제도사에 의한 시대구분과 반드시 대응하고 있지 않은것이 몇개인가 있다. 교과서의 편집형식과 교재의 선택이념에 의해 <도 표1>을 구분하면, 오른쪽난을 횡이중선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바와같이 5기로 나누어 정리 할 수가 있다.

- 제0기 모색기--‘보통학교학도용이과서’ 1911.
- 제1기 독자편찬개시--‘보통학교이과서’ 1913.
- 제2기 독자편찬정착--‘보통학교이과서’ 정정제판 1921.
- 제3기 일본문부성편 국정이과서와 동일--‘보통학교이과서’ 1923~.
- 제4기 독자편찬·과제중심--‘초등이과서’ 1931~.
- (제4’기 과제개정--‘초등이과’ 1937~.)
- 제5기 문부성편찬에 맞춤--‘자연의관찰’1942~
- ‘초등이과’[가로쓰기]³⁾ 1943~.

이것을 교육과정에 대응시켜 살펴보면, 이과가 초등학교에서 필수로 된 1920년 ‘조선교육령’ 개정아래서의 교과서는 제2기의 교과서에 대응되나, 그것은 제1기 교과서의 개정판에 지나지 않는다. 또, 소학교가 ‘조선교육령’하에 놓여져, 보통학교·소학교의 체제가 되었던때인 제3기의 교과서는 일본내지의 문부성편찬 ‘심상소학이과서(尋常小學理科書)’와 거의 같은것이고, 국민학교가 있었던때인 제5기의 교과서는, 조선 독자적인 교재가 많이 채용되었으나, 문부성편찬 ‘자연의 관찰’과 ‘초등과이과’에 맞추어 편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이과교과서에 의한 시대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일제하 조선총독부아래서의 과학·이과교육사

에서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교육이 정착하게 된 1921년 이후의 것이 거론되는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 당당시(제3기)의 교과서가 문부성편 ‘심상소학이과서’와 거의 같은것을 보고, ‘초기에는 문부성의 국정이과서를 모방하여, 다소 교재를 취사선택하고 다듬어 교과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전하는 기술이 적지않다. 더구나, 제3기보다도 전에 발행된 교과서를 읽어볼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에게의해서도, ‘처음의 교과서는 농업등 실용적인 교재가 많았고, 1919년 독립운동이 일어나고나서 일본의 교육수준에 맞춘 교과서(제3기의 것)가 만들어졌다.’라는 인상을 전하는 기술이 적지않다(松月秀雄·秋月孝久, 1942). 그러나, 과제문을 제시한 독자편찬의 이과서는 1913년에, 농업교재를 줄인 이과교과서는, 1921년에 이미 간행되어 있었던 것(제1기·제2기)이다. 즉, 제3기의 교과서만이 예외적인 교과서였던 것이다.

3. ‘연습문제’를 넣은 최초의 독자편찬 교과서와 문부성편찬 교과서에 준한 교과서

1911년 발행된 ‘보통학교학도용이과서’는, [한국구]학부 편찬 ‘이과서’(1908)⁴⁾를 조금 변경한것에 지나지않는다. 교재제목에서도, 권1 제1과의 ‘복숭아꽃’이라는 단원의 표기가 ‘李の花’에서 ‘桃の花’로 바뀐것 이외에는, 과수(41과와 57과)· 제목 모두 전혀 변화가 없다. 단, ‘비구름’이라는 과가 ‘雨雲’에서 ‘雲と雨’로, ‘늑’이라는 과가 ‘請’에서 ‘錄’으로 표기법만 조금 바뀌어 있을뿐이다.

한편, 제1기의 ‘보통학교이과서’(1913)는, 조선총독부가 독자적으로 편찬한 최초의 교과서라 해도 좋다. 권1이 총40과, 권2가 총38과로 되어있어 중항목주의(中項目主義)를 채용하고 있다. 문부성의 국정교과서 제1기인 ‘심상소학이과서’(1910)는, 5학년용이 55과, 6학년용이 53과인 소항목주의(小項目主義)를 채택, 각과 1,2시간마다의 관찰·실험을 통하여 수업을 개활하도록 하는 수업방식을 택하였지만, 조선총독부편 ‘보통학교이과서’에서는 그것을 폐한 것이다. 그것만이아니라, 과말(課末)에는, 실험·관찰을 전제로한 ‘연습문제’가 제시되어있다. 이것은 일본내지에서 출판된 ‘이과필기장(理科筆記帳)’이나 ‘이과학습장(理科學習帳)’과 비교해 보아도 빠른 움직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과필기장류에 그와같은 종류의 문제가 가해지게 된 것은 1920년전후의 일이기 때문이다(永田英治,

3) 세로쓰기 양식인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1937~)와 구분하기 위하여 필자들이 붙인것임.
 4) 본 교과서 이외의 조선총독부편찬 이과 교과서 문헌주는, <표 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말주(文末註)에서는 생략함.

1992).

그리고, 그 교재를 제4기의 '초등이과서'(1931~)와 비교해보면, 금속이나 암석, 스토-브등 '초등이과서' 교재의 선구가 된 교재가 적지않다.

<도표 2> 「보통학교 이과서」 권 1,
1921 정정제판, 처음2쪽.

보통학교 이과서 권1

-1쪽-

제1과 종자의 발아

[콩의 종자] [떡잎]

콩 종자는 둥글고, 노란색이 보통입니다. 그 한쪽에는 꼬투리에 붙어 있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콩 한알을 따서, 껍질을 벗기고 보면, 반으로 잘 갈라져 들로 나뉩니다. 그것은 떡잎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엽의 잘린 곳의 한쪽에는 어린 싹이 있습니다. 떡잎이 부풀어져 있는 것은, 싹을 틔울 때 양분이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자와 수분]

콩 종자를 심으면 땅 속에서 물기를 빨아들여, 많이 부풀어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껍질이 갈라져, 떡잎으로 부터, 작은 뿌리나 눈이 나옵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 뿌리는

-2쪽-

땅 속에 뻗고, 눈으로 부터는 잎이 나옵니다. 눈이 자람에 따라, 떡잎은 땅위로 나와 녹색으로 변합니다.

(콩의 발아하는 곳)



[종자와 온열]

종자가 발아하는 데는, 수분외에 온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있어도, 봄에 따듯하게 되지 않으면, 싹을 내는 일이 없습니다. 콩은, 처음에는 떡잎내의 양분으로 자라지만, 나중에는 뿌리로 땅속의 양분을 빨아들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습문제

1. 콩 종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 콩 종자가 발아하는 모습을 말하여 보아라.

그 위에, 1921년의 정정제판(제2기)에서는, 과의수나 편집 방침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농업적교재의 일부분이, 식물학적교재나 물리교재로 바뀌어져있다. 특히, 첫머리의 과가 '종자의 발아(種子の發芽)'(<도표 2>참조)로 된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1913년 초판(제1기)의 '제3과 종자와 모종(種子卜苗)'이 정정되어 모두(冒頭)로 옮겨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식물교재의 입문을 '발아'로 한 구상은, 1920년경 일본내지의 이과교육연구 및 이과학습장에서 보여졌던 것이기 때문이다.(永田英治, 1992).

그러나, 제3기의 '보통학교이과서'(전3권, 1923~)는, 문부성의 제3기본 '심상소학 이과서'(1921~)와 과수가 <46과, 51과, 45과>로 똑같고, 4학년과 5학년 1학기의 등·식물교재가 다소 변경된것뿐으로, 그 외에는 본문도 그림도 똑같다고 해도 좋다. 변경된 교재도, '벚꽃'이 '복숭아 꽃'으로, '유채꽃'이 '배추'로 바뀌었고, '모기'과에 '파리'가 더해진것과 같은정도로, 본문에는 기본적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이 제3기의 '보통학교이과서'(1923~)만이 특이한 존재라 해도 좋은것이다. 당시 일본정부가 융화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내선일체(內鮮一體)'정책과 관련이 없지만은 않으리라.

4. 과제중심으로 작성된 '초등이과서'와 '초등이과'

1931년부터 발행된 '초등이과서'는, 4학년이 15과, 5학년이 9과, 6학년이 7과라고 하는 대항목주의(大項目主義)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이과교육사연구에서도 자주 거론되었던 (神戸伊三郎, 1938; 板倉聖宜, 1968) 바와 같이, 처음으로 '학습과제'를 전면에 두고, 생활속에서 문제를 '총합적(總合的)'으로 선택하여 다룬 이과교과서라는 것에 틀림은없다.

예를들면, '제9 그네'는, '그네에 타 보자'라는 부름으로 시작하여 '그네가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언제나 같을까?' '자기혼자 댕굴때와, 친구와 함께 댕굴때, 한 번 흔들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변화없을까?' 등과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아동이 확인해 보도록하여, 혼들이 벽시계의 구조와 그 사용방법, 태엽으로 회전진동하는 덴뿌(天浮)⁵⁾의 이야기에 이어진다. 각각의 질문에대한 답을 설명하는 문장은 없고, 수업에 대한 짧은 개괄문이 여기저기 인쇄된 교과서로, 문부성편찬 '초등이과'의 선구가 된 것의 하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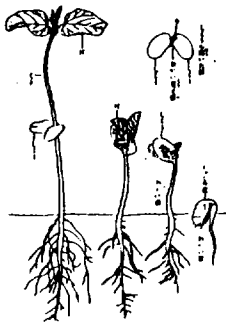
5) 덴퍼러치(temperature, 氣候)에서 온말. 시계의 부속품으로 태엽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말해도 좋으리라. (<도표 3>은 '제7 종자'의 3, 4쪽으로, 삼화나 내용을 볼때 제2기의 '보통학교이과서' 정경재판 1921을 계승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 문부성편찬 '심상소학이과서'에는 칼라그림이 전혀 없는데 반해, 조선총독부편찬 '초등이과서' 각권에는 칼라그림이 1쪽 또는 안팎 2쪽씩 들어있다.

<도 표 3> 「초등 이과서」 권1, 1931
변각발행. '종자'의 3, 4번째 쪽.

-59쪽-

(콩의 싹트기)



-60쪽-

이 싹트기와 콩 종자를 비교하여 다음의 것을 알아보자.

1. 종자껍질은 싹틀 때 어떻게 되어 있을까?
2. 싹틀 때의 떡잎은 종자 일때에는 어떻게 되어 들어 있을까?
3. 싹트기의 줄기, 눈, 뿌리는 종자의 어느곳이 자란 것일까?
4. 종자의 떡잎 안에 있는 양분은, 싹트기에서는 어떻게 도움
이 될까?

콩의 싹트기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알아보자.

5. 콩의 싹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교재들의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 혹은 문장을 보충하여 제4'기의 '초등이과'(1937~)에 계승되고 있다. '초등이과'의 4학년용 과의수는 15과로 변함이없지만, 5학년용은 9과에서 12과로, 6학년용도 7과에서 12과로 증가되어 있다. '바다'과가 '바다'와 '바다의 생물'로, '암석'과가 '암석'과 '광산'으로, '신체'과가 '인체의 구조' '소화와 호흡' '신경의 작용'으로, '거울'과가 '빛'과 '돋보기'로, '전화'과가 '전등'과 '전화'로 나뉘어 설정되어 있다. 이 '바다의 생물'이나 '광산'은, 그 기술에도 꽤 손을 대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원의 확보책과 관련이 없지않았다고 말해도 좋으리라.

또, '초등이과'(1937~)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동에게 부여되는 문제가 세분화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도록 바뀌어져 있는것이 적지않다.

'그네'과를 예를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그네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음의 것을 조사하여 보자.

-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와, 작게 흔들리고 있을 때, 한번 흔들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까 어떠한가?
- 혼자 타고 있을 때와, 친구와 함께 타고 있을 때, 한번 흔들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까 어떠한가?

길이가 다른 진자를 2개 만들어, 다음의 실험을 하고 진자의 흔들리는 모습을 알아보자.

- 같은 진폭으로 흔들어 보자.
- 다른 진폭으로 흔들어 보자.
- 추의 무게를 달리하여 흔들어 보자.

그에 더하여, 이때에는, '초등이과서'에 비교하여 칼라그림이 3,4배 늘어났다. 당초에는, '문부성편찬 '심상소학이과서'에는 별도로 칼라의 패도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조선총독부편찬 이과서에는 패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라고 예상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도 1933년에는 패도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⁶⁾

6) 조선교육회, 1933. 7. 1, 문교의 조선(文敎の朝鮮), No. 95, 권말 광고. 본광고에는, 부산 삼중출판사편으로 6년제 초등이과패도중 제5학년용에 대해 실려 있음.(現物未見)

5. 문부성편찬 '자연의 관찰'과 '초등과이과'에 준하여 다시 만들어진 이과교과서

제5기의 저학년 이과교과서인 '자연의 관찰'(교사용만 발행, 1942, 43)과 '초등이과'([가로쓰기] 1943, 44)는, 지금까지 일본의 이과교육사 연구에서는, '일본내지의 국민학교용 교과서를 일부 변경하여 번각한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확실히, 장정(裝幀)·편집 형식은, 아동용서, 교사용서 모두 일본문부성 저작의 것과 똑같다. 그러나, 선택된 교재를 비교해 보면, 조선 독자적인 교재가 꽤 많다.

예를들면, 단원 첫머리의 '봄의 정원' '봄의 야산'과 같은 2개과의 교재는, 문부성의 것이 아니고 조선총독부편찬 '초등이과서'(1931~)이후 제송되어져 온 것이다. 그 외에도, '수영'이나 '글라이더' '야채절임' '저울' '철물' 등 독자적인 교재가 제시되어있다. '저울'은 그전에는 5학년교재로서, '철물'은 같은 4학년교재로서 중요하게 다뤄지던 단원이었으며, '야채절임'의 삽화는 한국식으로 감장을 담고있는 모습의 그림이다. 또, '잠망경'과 같이 문부성편찬 교재와는 학년을 바꾼 것도 있다. 물론, 문부성편찬 '초등과이과'에서 "교재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종이구슬 소총'이나 '곤로와 물끓이기' 등은, 조선총독부편 '초등이과'([가로쓰기] 1943) 4학년 교재에서, 문부성의 교과서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다루고있다.

그러므로, 가로쓰기의 '초등이과'(1943~)는, 문부성의 '초등과이과'(1942~)를 일부 정정하여 작성하였다고 하기보다, '초등과이과'를 참조하면서 조선 독자적인 교재를 중심으로 개정편찬한 것이라 하는편이 좋다.

6. 결 론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이과교과서의 전모를 추적해보면, 秋月孝久(1942)가 국민학교령 하, 교과서가 발행된 직후에 저술한 '조선의 과학교육'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결

론 맺은것도 반드시 과대평가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조선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조선의 과학교육의 밝은 장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조선이 내지에 비하여 교육 개혁에 있어서도, 신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도, 꽤 대담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라."

결론적으로 말하여, 조선총독부편찬의 이과교과서는, 실험적인 사례(事例)를 일본내지에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阿部洋(1990). 第4集 <教科書編纂關係資料>について. 渡部學・阿部洋編,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第18卷, 復刻版, p.1.

石川謙(1964). 近代日本教育制度史料 第8卷, 講談社, pp. 108-109.

板倉聖宜・永田英治共編著(1986). 理科教育史資料<第1卷 科學教育論・教育課程>, 東京法令出版, pp.294-296, 334-353.

板倉聖宜(1968). 日本理科教育史(付・年表), 第一法規, pp. 327-332.

韓國舊學部編(1908). 理科書, 三省堂, 全2卷, 41課 pp76-57.

神戸伊三郎(1934). 臺灣朝鮮の理科書を通して理科教育の動向を見る. 學習研究, pp.206-215.

神戸伊三郎(1938). 日本理科教育發達史, 啓文社.

教育史編纂會(1939). 明治以降 教育制度發達史, 第10卷, 目次.

永田英治(1992). 理科教育研究入門-科學・理科教材史に新しい發想法を求めて-, あゆみ出版, pp.74-75.

長谷川鈍三(1967). 教育運動に屈した尋常小學理科書. 理科數室, No 108-115 回連載.

松月秀雄・秋月孝久(1942). 朝鮮の科學教育. 教育思潮研究會編, (教育思潮研究) 科學教育, 目墨書店, p.149.

(ABSTRACT)

Science Textbooks under the Rule of CHOSUN Government General

Eiji Nagata

(Miyagi University of Education in Japan)

Min-Young Song

(Kyonggi Kwangmoon Primary School)

Science textbooks which were compiled by CHOSUN Government General are known as books which appeared after 'Science Textbook for Common School' (1923-) compiled by CHOSUN Government General which are almost similar to state authorized textbooks and are also known as leaving the effect on 'Scienc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1931-) which were focused on the subjects being issued since then and 'Science Text for Elementary Course' (1942-) being compiled by the Education Ministry. However in this research it was found out that there were publications in 1911, 1913 and 1921 and they were harbingers for 'Scienc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1931-). For this reason it was decided to report overall picture on the science textbooks being compiled by CHOSUN Government General. And it was possible to illustrate that such textbooks can be classified into following 5 periods ;

The 1st period: The time for search--'Science Textbook for Students of Common school' 1911 compiled by CHOSUN Government General.

The 2nd period: Commencing separate compilation--'Science Textbook for Common School' 1913 compiled by CHOSUN Government General.

(The 2'nd period: Final Separate Compilation-- Reissue after corrections of 'Science Textbook for Common School' compiled by CHOSUN Government General, 1921.)

The 3rd period: Same as the state authorized science textbook of Japan--'Science Textbook for Common School' compiled by CHOSUN Government General, totally 3 books 1923- .

The 4th period: Separate compilation, centered on subjects--'Scienc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compiled by CHOSUN Government General, 1931-.

(The 4'th period: Changers of subjects--'Science Text for Elementary School' compiled by CHOSUN Government General, 1937-.

The 5th period: Matched to compiled by the Education Ministry--'Observation of Nature' compiled by CHOSUN Government General, 1942-'Science Text for Elementary School'(Writing laterally) 1943-.